

# "예술은 똑같으면 재미없어... 변화 두려워 말아야"

May 31, 2019 | 김슬기 기자

page 1 of 2

## "예술은 똑같으면 재미없어... 변화 두려워 말아야"

**추상화 거장 하종현 개인전**

**제2의 고향 부산에서 첫 전시**

**"색도 안 쓰는 게 화가나**

**염라대왕이 꾸중할까 변신 결심"**

"제 작품 어땠소? 죽어라고 열심히 했습니다."

경남 산청에서 태어난 하종현(84)에게 부산은 제2의 고향이다. 부산 수영구 망미동 F1963에 자리 잡은 국제갤러리 부산에서 첫 개인전을 여는 그의 표정은 유난히 밝아 보였다. 30일 기자들과 만난 그는 "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날"이라고 인사 말을 건넸다.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열

리는 이번 전시는 최근 LA, 파리, 런던, 뉴욕, 도쿄 개인전 등 국제 활동에 주력해 온 하종현이 국내에서 4년 만에 여는 개인전이다. 수십 년 동안 천착해온 대표 연화 '접합(Conjunction)'의 근작 및 신작 15점을 걸었다.

2015년 국제갤러리 서울점 개인전에서 '그을림(smoke)' 기법을 비롯해 기왓장, 벽돌, 흙, 여색풀 등 자연의 색을 연상케 하는 '접합' 신작을 처음 소개했다면, 이번에는 국내 최초로 작가가 근래 새롭게 도입한 적색과 청색, 다홍색의 대형 크기 '접합' 연작을 공개한다.

연한 다홍색과 짙은 다홍색, 두 색으로 보이는 '접합 18-12'는 실상은 물감을 한 색만 썼다. 마태의 뒤에서 물감을 밀어내 캔버스를 붉게 물들이고, 그을음을 냈다

니 다른 색상으로 보인 것이다. 전면으로 배어난 물감은 다시 붓으로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렸다. 쏟아지는 폭포처럼 강한 에너지가 느껴졌다. 이 거대한 작품 앞에서 그는 "물감을 섞을 때도 매번 다르고, 밀어내고 그을음을 낼 때도 색이 매번 달라진다. 예술은 똑같으면 재미가 없는 법이다.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예술이다"고 설명했다.

6·25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는 고향에서 부산으로 왔다. 온갖 피란민이 다 물러와 끼니도 굶으며 힘들게 살던 시절이었다. 사촌의 가게에서 새벽마다 자갈치시장에서 팔건을 떼와 장사를 했는데 대신할 터니 같이 일하는 말까지 들었다. 다 포기하고, 그림을 그리려고 서울로 왔다. 그는 "온갖 굶은일을 가리지 않고 하면 그 시절

이 내 자산이다. 그 고생이 바탕이 돼서 오 늘이 있는 거다"고 했다.

미술대학에 왔지만 물감을 살 돈이 없었다. 그래서 데생과 크로키 등을 다 버리겠다고 생각했다. 대신 미군이 중량비를 단던 마대를 구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. 그는 "데생이나 크로키나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, 나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다 버렸다"고 설명했다.

그의 단색화가 오늘의 화려한 색을 있게 된 건 오래된 일이 아니다. "2007년이 었다. 내 그림들을 보고 있으니 죄다 무채 색이더라. 나중에 죽어 염라대왕 앞에 가면 '뭇 년 그렸나' '너처럼 색깔도 안 쓰는 사람이 화가냐'고 물을 것 같았다. 그때부터 색을 많이 쓰겠다고 생각했다. 이견의 회장도 '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'

고 하지 않았다. 사업가도 저런데 내가 가 만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."

그때부터 단청의 색, 도자기의 색, 고색 창연한 기와장의 색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다. 이번 전시에는 다른 방식을 시도한 신작이 여러 점 걸었다. 캔버스의 앞으로 밀어낸 물감을 다시 뒤로 밀어낸 '접합 18-52' 등이 대표적이다. 그는 "매번 똑같은 생각을 하면 되겠다. 자기 색깔을 자기가 끄집어내야지. 그림에 정답은 없는 것 같다. 작자가 알아서 나아가는 거다. 앞으로 도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올 거다"고 말했다.

하종현은 9월 밀라노 카디 갤러리, 2020년 2월 런던 알민레쉬 갤러리에서 개인전도 준비하고 있다. 노장이 붓을 내려 놓을 날은 아직 멀어 보였다.

부산/김슬기 기자



국제갤러리 부산에서 하종현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